

기획

비대면 강의 확대, ‘토론’ 중시한 후마 교육은 어떻게?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재도약’이라는 이름으로 후마 개편안이 시행된 지 세 학기째를 맞았다. 개편안은 시행 초부터 학생들의 참여 보장 여부, 필수 수강 과목 교체 등을 이유로 논란을 샀다. 강의 내용의 개선과 수강신청, 그리고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제기된 미래 교양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다. 개편안의 본 취지대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구성원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세계와 시민’, ‘우사세’·‘시민교육’ 모두 아우르고 있다

당초 후마가 개편안의 취지로 제시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이 담고 있는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과, 함께 교육할 때 시민권의 발전사를 통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신설된 ‘세계와 시민’ 수업에 기존 수업이 50% 정도씩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영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은 “신설된 강의가 기존 강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를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내용이 수정되었다”며 개편된 교육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세계와 시민’을 수강한 일부 학생들은 강의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 학기 세계와 시민 과목을 수강한 안태욱(한의예 2019) 씨는 “강의계획서 상 기존의 ‘시민교육’ 수업과 커리큘럼과의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웠다”면서 “‘우사세’ 과목을 아울러 신설된 수업인 만큼 세계화와 관련된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결국 기존의 시민교육과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지구촌 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웠다”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동일 교수가 진행하는 ‘시민교육(GEB1301S02)’ 수업과 ‘세계와 시민(GEC1104S19)’ 수업의 강의 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헌법 속 시민권’, ‘시민권의 역사’, ‘생명권’, ‘언론의 자유’, ‘재산권’,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시민권’ 등 2주차부터 11주차까지의 수업 주제가 동일했으며, 학생들의 발표 수업이 진행되는 주차의 명칭만 ‘현장활동 발표’에서 ‘GCP(Global Citizen Project) 발표’로 달라졌다.

일부 강의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영준 학장은 “개편된 교육안은 분명 이전 강의와는 다른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적으로도 시행된 바가 극히 드문 교육이기에 교수진도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교양 교육 설계에



참여한 고봉준 인가담 PD 교수는 “만약 이전 강의들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바뀐 개편안에 따르지 않는 교수자나 강의 진행 능력의 문제일 수 있으며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과거 ‘시민교육’과 ‘우사세’를 수강한 학생들 중 일부는 두 강의가 충분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박민서(회계학 2017)씨는 “애초에 ‘시민교육’과 ‘우사세’가 비슷한 내용을 다뤘다고 보기 힘들고, ‘우사세’는 세계의 철학과 과학을 엮보는 수업으로 시민권의 발전사를 익히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수업이라 느꼈다”며 “만일 신설된 수업이 기존 수업의 내용을 아우르지 못한다면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 학장은 “‘우사세’는 직접 설계에 참여한 수업이고,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과목’이라며 “2022년까지 2019학번 이전 학생들의 수강을 위해 강의를 유지되도록 계획돼 있으며,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앞으로 배분인수 교과로 수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의 유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주제연구’와 ‘성찰과 표현’, ‘글쓰기’ 수업에서 개선된 부분은

‘주제연구’ 수업과 ‘성찰과 표현’ 수업은 학술 에세이 작성 교육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글쓰기’ 수업과 달라진 교육안을 강의 계획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쓰기2’ 수업을 수강 중인 황지현(한의예 2018) 씨는 “‘글쓰기2’ 수업이 ‘주제연구’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수강 중인 ‘글쓰기2’ 수업과 같은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주제연구’ 수업에서 동일한 수업내용이 진행 중인 걸 확인했다”며 일부 ‘주제연구’ 수업에서도 큰 개선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학술 에세이 작성을 배워야 하는 ‘주제연구’ 수업의 학생들이 여전히 소논문 작성을 배우고 같은 과제를 부여받는 등 개편안의 지침과 강의 현장의 현실은 달랐다. 두 강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두 강의 간의 학점 차이, 개편안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태호 글쓰기 PD 교수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접목하여 학술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였지만,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기존에 설정 하였던 방식을 교수자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전면적인 평가와 함께 교육 목표와 방향, 내용과 형식에 대해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줄어든 수강 인원, 수강신청 개선은 아직 요원

후마 재도약 사업에 포함된 변화 중 하나는 수강 인원의 조정이었다. 구성원 간의 활발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변화였다. 고봉준 PD 교수는 “지난해 수강 인원이 줄어 실제로 토론을 하기에 수월했고, 학생들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수업이 됐다”면서 “각 학생의 발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더 자주 토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이었다”고 밝혔다.

후마의 교양 강좌 수는 개편 이전과 비슷하거나 늘어났다. 다만 수강 인원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정비됐어야 할 수강신청 여건 개선은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캠과 국제캠의 후마 행정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서울캠 후마 행정실은 답을 주지 않았고,

국제캠 행정실 “역시 이렇다 할 계획이 없다”며 “수강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학사지원과에 전달한 의견도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김민성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장은 “수강인원 조정에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수강신청이 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개편안 이전 강의도 수강신청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학기 ‘세계와 시민’은 100개의 강좌가 개설되었지만 ‘시민교육’은 7개가 개설되었고, ‘성찰과 표현’은 110개의 강좌가 개설되었으나 ‘글쓰기1’은 15개 강좌만이 개설됐다. 진승재(경영학 2015)씨는 이와 관련해 “신청할 수 있는 과목도 많지 않았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는 강의는 수강신청 경쟁이 더욱 치열해 남는 강의를 들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비대면 강의 확대, 교양 교육의 미래는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면서, 활발한 토론 문화를 지향했던 후마는 또 하나의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교수자들은 ‘ZOOM’을 통해 토론 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의견 교류를 이끌어내는 등 비교적 강의실 강의에 가깝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했다. 이영준 학장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교양 강의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은 있지만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강의의 질을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비대면 강의가 집중 조명을 받으며 대학가에서도 온라인 강의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기반 교양 교육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의 의견

차가 있었다. 김민성 위원장은 “후마에서도 온라인 교육은 분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현장 강의와 같은 수준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영준 학장은 “후마의 교육은 현장에서의 인문학적 토론에 목표를 둔 만큼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시간 제약의 극복 등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의 사태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봉준 PD 교수도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대화와 토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마의 강의들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만일 비대면 강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더라도 비용 절감 등의 차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현 사태 이후의 가장 큰 과제로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학생과 후마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어놓았다. 이영준 학장은 “후마 대학생 위원회의 설치와 배움학점제의 실시 등은 모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을 때 후마의 긍정적인 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성 위원장은 “후마 개편안의 시행이 가장 문제 됐던 까닭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독단적 진행이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이미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를 귀담아 듣고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답하는 것은 학교와 후마에게 남은 과제”라고 답했다.